

# 保寧 團圓寺의 逸名浮屠와 그 塔碑

李 殷 昌

保寧郡 熊川面 水美里에 團圓寺라는 庵子가 있다. 京南線 熊川驛에서 北方으로 約 5km 地點에 이르르면 고개가 나서고 이 山麓 숲속에 庵子가 있고 이 附近에 伽藍遺址가 있어 石佛·石塔破片·瓦片 등이 散在한 가운데 秀麗한 彫刻技術을 보이는 逸名浮屠 殘石과 이와 關聯있는 塔碑로 推定되는 龜趺와 螭首가 있다.



## 1、逸名浮屠

塔號는 傳해지지 않고 塔身 또한 大部分이 傷失되고 다만 基壇伏蓮石과 屋蓋石만이 殘存하는데 八角圓堂形塔이었음을 알았다.

基壇伏蓮石은 八角盤石인 바 八角各區에 眼象을 一個씩 配置하고 上面은 流麗한 總十六葉伏蓮紋을 둘러새겼고 그 가운데는 臺軸을 받치는 괴임이 造出되었다. (一邊長 五五cm, 高三五cm)

屋蓋石은 八角인 바 屋裏는 二段級의 屋蓋받침이 表出되고 檐下가 그대로 變어나가다가 八隅轉角에 이르러 反轉을 보이며 귀꽃이 달렸다. 屋表는 八個降棟으로 區分하고 頂部에는 相輪部를 받기 爲한 八葉伏蓮紋을 둘러했고 그 안으로 層層히 줄아든 八角形 四層段을 彫出하였다.

그리고 이 屋蓋의 特異한 點은 檐下에 雲紋과 飛天像을 浮刻한 것이 다 (一邊長 五八cm, 高 六〇cm)

飛天像은 非男非女의 童顔을 三面寶冠을 戴하고 통통한 兩腕에 腕釧을 끼고 束帶天衣를 着하여 翻轉하는 모습이 特出한데 더욱이 左手로는 花枝를 持하고 右手로는 香煙이 타오르는 供養爐를 仰奉하고 兩腕에 天衣자락을 걸고 悠悠히 飛翔하는 表現이 秀麗하다.

## 2、塔 碑

龜趺……四角盤石 (모를 죽여 前方은 L方式 後方은 ㄴ方式으로 된) 위에 거북을 造成하였다.

四足이 四隅에 配置되었는데 五指가 힘차게 들어나고 後側兩足은 卷毛가 表出되었으며 龜首는 腹皮와 背甲에서 우뚝 나와 兩目, 兩身, 鼻孔, 齒列 鬚髯 등의 奇怪한 彫刻을 보이며 背甲에는 二重六角紋을 連續시키어 龜甲을 이루고 또 後面은 脊椎骨을 刻出하였으며 龜尾는 背甲下에 多사려 있다.

(底邊 橫 一四〇cm 縱 一七cm, 高 七〇cm) 背甲中央에 雲紋이 있고 雲紋가운데에 半開蓮花모양으로 된 碑座를 形成하였다.

(碑座는 橫 一〇九cm, 縱 四五cm, 碑長은 없다)

螭首……長方形六面體로 卷雲새 蟠龍이 뒤트는 모습인데 如意珠를 두고 九龍이 相爭하는 意匠이다. 正面 中央에는 田字形 碑額이 있어 既往에는 碑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判讀치 못하였고 밀은 碑身에 맞추는 角穴을 만들고 그 밖으로는 層級받침을 다시 周椽으로 蓮花紋을 彫刻하였다.

(橫 一五〇cm, 縱 七五cm, 高 六〇cm)

以上の 諸品은 優作으로서 그 年代는 麗初가 아닌가 한다.